불교 AI 윤리 선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⑪ 바티칸의 AI 회칙, 우리는 무엇을 답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가"

AI는 정말 인간의 헛된 욕망을 쌓아가는 바벨탑일까. 지난 5월 25일 바티칸 시노드 홀에서 한 문서가 발표됐다. 바로 교황 레오 14세의 첫 회칙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였다. 우리말로는 '고귀한 인류'라고 옮길 수 있다. 가톨릭에서 회칙은 교황이 전 세계 주교와 신자들에게 보내는 공식 사목 서한으로, 교회의 문서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형식에 속한다. 비록 가톨릭교회의 문서라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안에 담긴 물음은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모두를 향한다.

사실 바티칸이 AI 문제에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20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IBM 등과 함께 '로마의 호소(Rome Call for AI Ethics)'를 통해 '알고리즘의 윤리'를 천명한 바 있다. 이어서 2025년에는 교황청 신앙교리부와 문화교육부 공동 문서인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에서 "AI는 인간 지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칙은 오랜 숙고의 연장선 위에 놓인, 가장 권위 있고 종합적인 응답인 셈이다. 발표 자리부터 그러했다. 교황이 회칙을 직접 발표했고, 그 자리에는 여러 추기경과 신학자들은 물론, 클로드를 개발한 AI 기업 앤트로픽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토퍼 올라(Christopher Olah)까지 함께했다. 교회의 최고위 성직자들과 첨단 AI 기업의 창업자가 한자리에 앉은 이 장면 자체가, AI 문제가 더 이상 어느 한 진영의 일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사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가톨릭만이 아니다. 개신교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무분별한 AI 개발에 거듭 우려를 표하며 "이윤이 아닌 생명을 위한 기술"을 촉구했고,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 협력 기구(OIC)와 여러 울라마 협의체가, 샤리아의 정의와 책임, 인간의 감독을 기준으로 AI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힌두 전통에서도 다르마와 아힘사(불살생)를 토대로 한 AI 윤리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종교를 가리지 않고, 인류의 오랜 영적 전통들이 약속이나 한 듯 AI 앞에서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교황은 이번 회칙을 통해 인류가 지금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던 바벨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예루살렘의 길이다. 바벨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계획, 하나의 권력을 통해 서로 갈라지고 흩어지는 불안을 이겨 내려 했다. 그러나 그 결속 안에는 이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다양성을 지우는 획일성, 하늘에 닿으려는 자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것이다. 교황이 AI시대를 바벨탑에 빗대어 읽어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오늘의 AI 개발 경쟁 역시 더 빠른 모델, 더 많은 데이터, 더 큰 연산 능력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 기술은 연결을 약속한다. 그러나 그 연결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의 노동을 무시하며 누군가의 판단권을 빼앗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더 정교한 바벨탑일 뿐이다.

교황 레오 14세 "AI 무장해제" 회칙 발표
AI시대를 바벨탑에 비유, 인간 존엄 강조
기술, 지배 · 경쟁 언어에서 풀어내란 요청
불교도 시대 고통 앞서 침묵하지 않기를
자비를 인간 몫으로 지키겠다는 서원 필요

"AI를 무장해제한다"는 말

이번 회칙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는 "AI를 무장해제한다"라는 말이다. 이는 기계를 부수거나 기술을 포기하자는 뜻이 아니다. 무장해제란 기술을 지배와 경쟁의 언어에서 풀어내자는 요청이다. 오늘날 AI는 이미 군사와 금융, 교육과 의료, 행정과 언론, 노동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 과정에서 AI는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권력의 형태를 만든다.

전쟁의 영역에서는 더 심각하다. 생사를 가르는 결정이 계산할 수 있는 위험 점수와 표적 분류로 환원될 때, 살상은 더 차갑고 더 빠르며 더 책임 없는 일이 된다. "기계가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말은 설명처럼 들리지만, 실은 책임을 지워 없애는 말일 수 있다. 회칙이 "어떤 알고리즘도 전쟁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못 박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주목할 것은 회칙이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교회가 물러서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대목이다. 교황은 발표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이들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기술적 해답은 없고 전문가를 대신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간에 관한 지혜를 내어놓으려 한다"라고 선언한다. 침묵하는 관조자가 아니라, 끝까지 묻고 대화하는 동반자로 남겠다는 다짐이다.

선언 이전에 서원(誓願)이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 불교를 향한 물음이 되돌아온다. 가톨릭이 이렇게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면, 연기와 자비의 전통인 불교는 이 시대의 고통 앞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AI라는 대변혁 속에서, 인류의 다양한 종교 전통은 각자의 언어로 인간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모아 가고 있다. 불교 역시 이제 그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의 언어로 같은 물음에 응답할 차례다.



가톨릭이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면, 연기와 자비의 전통인 불교는 이 시대의 고통 앞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AI라는 대변혁 속에서, 인류의 다양한 종교 전통은 각자의 언어로 인간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모아 가고 있다. 불교 역시 이제 그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의 언어로 같은 물음에 응답할 차례다.
AI Grok 생성 이미지

그렇다면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가톨릭이 했으니, 불교도 해야 한다"라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선언은 경쟁의 형식도, AI라는 유행어로 불교의 현대성을 홍보하는 장식도 아니다. 불교 AI 선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번 가톨릭의 AI 회칙이 제시하는 비전에도 분명한 한계는 있다. AI를 둘러싼 문제를 주로 '인간 존엄'과 '인간 중심'의 언어로만 규정함으로써, 인간 이외의 존재가 겪는 고통과 손상을 부차적인 차원에 머물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AI 기술의 사용을 둘러싼 윤리적 책임을 주로 인간 사회 내부의 정의와 권리문제로 다루면서, 그 이면에서 파괴되고 소모되는 생태계와 다른 생명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전면에 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불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인간 존엄이라는 언어를 존중하되, 그 지평을 모든 중생의 고통과 생태적 관계망까지 넓혀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가 삼키는 전력과 물, 모니터 화면 너머에서 저임금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손길, 알고리즘이 부추기는 욕망과 중독. 이 모두는 제각기 흩어진 사안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올을 당기면 나머지가 함께 딸려 오는 하나의 그물이다. 화엄(華嚴)의 인드라망은 그물코마다 박힌 구슬이 서로를 비추어 온 우주를 머금는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AI시대의 디지털망에서는 그 상호 비춤이 곧 상호 책임으로 바뀐다. 내가 누리는 편리의 불빛 하나가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노동과 괴로움으로 번져 가는 까닭이다. 그 보이지 않는 연기(緣起)의 그물을 끝까지 읽어내는 일, 불교가 이 시대에 건넬 수 있는 응답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렇기에 불교가 세상을 향해 관점과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일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모호한 침묵은 때로 기술의 방향을 묵인하는 또 다른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권장하는지를 분명한 언어로 내놓을 때, 비로소 수많은 불자와 사회가 의지할 하나의 좌표가 마련된다.

그런 점에서 이 선언은 선언문이기 이전에 서원(誓願)이어야 한다. 기술을 거부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기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다짐이요, 자비를 기계에 떠넘기지 않고 인간의 몫으로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다짐이다. 이는 개발자만의 몫이 아니라 종단과 불교 언론, 스님과 재가 불자 모두의 몫이다.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일자리와 판단, 마음의 습관을 조용히 재정렬하고 있다. 그 속도는 우리의 성찰을 기다려 주지 않으며, 머뭇거리는 동안 기술의 방향은 탐욕과 경쟁의 논리 안에서 굳어져 버린다.

불교 AI 윤리 선언은 그 흐름 앞에 세우는 기준이자, 고통받는 존재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책임의 표현이다. 한국불교가 이 논의의 자리에 책임 있게 들어서는 첫걸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 · 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 · 아이케어센터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